양 3,800마리가 집단 폐사한 까닭

▲ 최근 아리헨티나에 닥친 이상기온으로 양들이 집단 폐사했다.

아르헨티나 북서부 코리엔테스주에서 양 3,500여 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날씨 때문이다.

지난 21일 현지 언론들은 특히 피해가 큰 곳은 양을 기르는 농장이 집중돼 있는 쿠루수콰티아 지역이라고 전했다. 이곳에서만 양 3,000마리 이상이 떼죽음을 당했다. 원인은 저체온증이다. 한 농장주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위를 견디지 못한 양들이 쓰러지더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고 말했다.

원래 양들은 비교적 추위에 강한 편이다. 하지만 이건 털이 온전할 때의 일이다. 이번에 폐사한 양들은 털이 모두 깎인 상태였다. 양들이 털을 깎게 된 건 주인의 욕심이 아니라 배려 때문이었다. 코리엔테스주에선 최근 기온이 37도까지 상승했다. 남반구에 위치한 아르헨티나에선 이제 12월이면 여름이 시작된다.

무더위가 1주일 가까이 이어지자 농민들은 더위가 빨리 온 것으로 판단했다. 털이 수북하게 자란 양들을 보면서 농민들은 더위에 고생할 양들을 위해 약간 이른 듯했지만 양털을 깎았다.

하지만 털을 밀자 기다렸다는 듯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한겨울 추위가 다시 몰아쳤다. 결국 양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죽어갔다.

한 농민은 "더울까봐 털을 깎아준 게 양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꼴이 됐다." 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22번째 아이 임신한 40대 부부

최대 규모의 대가족을 이룬 40대 부부가 최근 다시 임신 소식을 알려 관심을 모았다.

▲ 뱃속 태아를 포함해 21명의 아이를 둔 대가족 부부의 과거 사진

지난 20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잉글랜드 랭커셔에 사는 수 래드포드(44)와 남편 노엘(48)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최근 초음파 사진을 공개했다. 래드포드 부부의 임신 소식이 놀라운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이미 20명의 자녀가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7살이었던 당시 처음 만난 부부는 아내가 14살, 남편이 18살 때인 1989년 첫 아이인 크리스(30)를 낳았다. 5년 뒤 둘째 딸 소피(25)가 태어났고, 이후 거의 매년 아이를 출산해 1년 전인 2018년 11월에는 21번째 아이인 보니를 출산했다. 그리고 최근, 22번째 아이의 임신을 새롭게 알렸다.

래드포드 부부는 대가족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들 한 명이 사산되는 아픔(17번째 아이)을 겪기도 했지만, 서로에게 희망과 사랑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또 다시 새 가족을 맞이하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을 포함해 모든 자녀가 여전히 래드포드 부부와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둘째 딸인 소피는 이미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다.

물론, 대가족으로 사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남편 노엘은 베이커리 사업체를 운영하며 10개의 침실이 있는 주택의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다. 일주일에 식비로만 350파운드(약 500달러)가 들고, 자녀 20명이 어지럽힌 집을 청소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하루 평균 3시간에 달한다.

매일 빨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 평균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빨래의 무게만 18kg 정도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군사 작전' 이라고까지 표현한 아내 수는 "내년에 태어날 아이가 기다려진다. 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부정행위 방지 위해 상자 뒤집어 쓴 학생들

인도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머리에 종이상자를 쓰게 한 채 시험을 치르게 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상에 확산해 논란이 일어났다.

▲ 학생들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상자를 쓴 채 시험을 보고 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는 지난 16일치러진 시험에서 종이상자를 사용한 커닝 방지책을 시험 도입했다. 상자는 마치 경마에서 말이 옆쪽을 못 보도록 착용하는 블링커(눈가리개 가죽)를 연상시켰다.

이런 모습은 이날 한 교직원이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당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문건을 제출했으며 이미 사과했다고 밝혔다.

학교 책임자에 따르면, 이날 학생들이 상자를 머리에 쓴 것은 미리 학부모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시험을 치를 학생 72명 중 보호자의 양해를 얻은 56명만이 참가했고, 이들 학생은 각자 상자를 학교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날 시험에서는 시작한 지 15~30분 만에 문제를 다 풀고 머리에 쓴 상자를 벗은 학생도 많았으며 모든 학생이 1시간 안에 시험을 마쳤다고 이 책임자는 덧붙였다.

인도에서는 학업 성적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2015년에는 시험을 치르는 자녀에게 커닝페이퍼를 전해주려고 학부모가 학교 외벽을 기어오른 사건도 있었다.

RE/MAX DIAMOND BEST REALTOR® EVER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Deerfield
방3 화3 약 1,464sqft 초,중,고 도보거리
최고의 학군 얼바인 타운홈
모던스타일, 업그레이드 실내 ,하드우드
쾌적한 환경, Turn Key **$688,000**

Tustin
방2 화3 약 1,850sqft 2개의 넓은 안방
터스틴 골프코스가 뒷마당, 골프장 뷰
호수 뷰, 타운하우스, 리모델된 실내
엔지니어우드 Floor **$769,800**

Coin Laundry
코인 라운드리 가디나 지역
월 순수 $6,000 새기계, 리스기간 아주 좋음
한주인이 오래 경영 **$250,000**

USC 근처
3 Unit #1 방4 화2,#2 방1 화1,#3 방1 화1
다운타운 인컴 매물입니다
렌트 인컴 아주 좋은 찾기 힘든 매물
렌트비 $5,100
캡레이트 6.5% **$695,000**

Silver Lake
방2+Den 화3 약 1,600~2,000sqft
요새 핫한 지역으로 부상중인 실버레이크 새집
다운타운이 한눈에 보이는 뷰
2019년 12월 완공 예정
모델 투어 예약중 **$855,000**부터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주택, 상가,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 가 꼭 필요합니다
Member of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 (CAR)

949.501.8555 Fax: 714.367.1399 LeahchangRealty@gmail.com
605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